

#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 분석을 통한 이주여성의 정보리터러시 향상 방안\*

## A Study on Improving Information Literacy of Marriage Immigrants through the Analysis of Marriage Immigrants Gatekeepers

이용재(Yong Jae Lee)\*\*, 조용완(Yong Wan Cho)\*\*\*

### 【초 록】

본 연구는 부산과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 같은 설문도구로 진행된 일반 결혼이주여성 189명의 정보리터러시 수준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게이트키퍼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은 2009년 같은 설문조사로 얻어진 일반 결혼이주여성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총 8개의 정보리터러시 세부항목에서도 그러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들이 일반 이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가지게 된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게이트키퍼 14명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국의 정보이용환경”은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들의 “높은 교육 수준”, “한국어 능력과 이중/다중 언어능력”, “정보활용교육의 경험”, “정보이용 관련 한국 가정의 우호적 환경”,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활발한 사회참여”, “다양한 정보제공기관과 매체의 적극적 이용” 등은 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가지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끝으로, 위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 【키워드】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자, 게이트키퍼, 오피니언 리더, 정보중개자, 여론지도자, 정보활용능력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vel of

information literacy of the marriage immigrant gatekeepers in Korea. To do this, 51 gatekeepers who live in Busan and Gyeongnam Province were surveyed and the result was compared with the result of another study that was conducted regarding 189 ordinary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Busan and Gyeongnam Province in 2009 and used the same survey instrument. As a result, the level of information literacy of the gatekeepers was superior to that of the ordinary marriage immigrants. Also, 14 gatekeepers were interviewed to investigate how they had higher level of information literacy than that of ordinary marriage immigrants. Through analysis of the interviews, “information use environments of the mother country” didn't support their information literacy, but “higher education level”, “Korean language skills and bilingual/multilingual abilities”, “experiences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information-friendly home environment”, “positive attitude toward life and active social participation” and “active utilization of several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and media” could be the backgrounds of higher information literacy of the marriage immigrant gatekeepers. At the end of this study, some suggestions are made for improving the information literacy of the ordinary marriage immigrants.

### 【Keywords】

Marriage Immigrant, Migrant Brides, Marriage Migration, Ethnic Gatekeeper, Opinion Leader, Information Competency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정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7-411-J01103).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lyj5384@pusan.ac.kr) (제1저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전임강사(yongwan@cu.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0년 8월 11일    논문심사일자 : 2010년 9월 5일    게재확정일자 : 2010년 9월 25일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0년 6월말 현재 약 121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a). 그 중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서 영구 정착을 목표로 하는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2010년 6월말 현재 총 136,556명이며, 그 중 대부분은 결혼이주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에 비해 그 수는 적을 지라도,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들의 정착과 적응에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정보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정착함에 있어 그리고 가정주부이자 학부모로서 한 가정을 꾸려나감에 있어 다양한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어 활용하는 제반능력, 즉 정보리터러시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 전에 생산된 관련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여성 출신으로 주류사회와 결혼이주여성 사회를 연결하고 일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은 어떠하며, 일반 결혼이주여성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이 일반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높은 정보리터러시를 보유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일반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 1.2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연구방법은 먼저 국내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이전의 게이트키퍼 연구들처럼((Metoyer-Duran 1993a; Agada 1999) 다문화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되, 게이트키퍼의 특성을 잘 반영되도록 모국 출신자에게 생활상담을 제공하거나 통역, 번역 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2009년 일반 결혼이주여성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부산과 경남지역 거주자로 국한하였다. 하지만 이들 게이트키퍼들은 일반 결혼이주여성들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어, 부득이 부산과 경남지역 내 다문화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들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였다.<sup>1)</sup> 설문조사는 2010년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로 연구자들이 직접 기관과 단체들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일부는 다문화 관련 기관과 단체들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는데, 총 51명의 게이트키퍼들이 참여하였다.

이어서, 그들이 일반 이주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보리터러시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배경

<표 1> 국내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의 국적과 성별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b)

구분	총합계	남자	여자	구분	총합계	남자	여자
총계	136,556	17,783	118,773	미국	2,000	1,452	548
중국	34,361	3,475	30,886	우즈베키스탄	1,671	49	1,622
베트남	32,472	161	32,311	러시아(연방)	1,147	59	1,088
한국계 중국인	32,185	7,350	24,835	캐나다	1,036	914	122
일본	10,189	822	9,367	파키스탄	650	622	28
필리핀	6,895	195	6,700	네팔	646	131	515
캄보디아	3,705	8	3,697	인도네시아	444	50	394
타이	2,453	38	2,415	타이완	438	67	371
몽골	2,414	48	2,366	기타	3,850	2,342	1,508

1) 구체적으로는 (재)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부산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사)아시아공동체, (사)삼산거주의국인지원협회,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등이다.

을 살펴보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 14명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그들의 정보리터러시와 관련한 설문지 내용을 심화하는 질문들 위주로 진행되었다. 면담은 연구자가 피면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담자와 피면담자간 1:1 또는 1:2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개별 면담은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첫째,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조사하고, 둘째,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2009년에 조사된 일반 결혼이주여성의 그것과 비교하여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고, 셋째,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들이 높은 정보리터러시를 가지게 된 배경을 면담을 통해 검토하여 일반 이주여성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의 한계와 관련해, 본 연구는 부산과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 51명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14명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 2.1 주요 용어의 개념

먼저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이민자라는 용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의미하는데, 이들 중 여성들이 바로 결혼이주여성이다.

게이트키퍼(gatekeeper)는 한 사회 내 이질적인 두 문화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인물인데, 다문화 환경에서는 주로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여론에 영향을 행사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문화적응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Metoyer-Duran 1993a; Metoyer-Duran 1993b). 이 게이트키퍼들은 소속된 소수자 커뮤니티에서 그들을 커뮤니티 내에서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여론지도자(opinion leader)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는 미국대학도서관협회(ACRL)의 정의에 따라 “정보가 필요한 때

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평가하고 이용하는 능력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ACRL 2000).

### 2.2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소수자 집단과 주류 사회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게이트키퍼들에 관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들을 선행연구로써 살펴해보았다. 여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수민족 게이트키퍼 129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고 배포하는지, 게이트키퍼들이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지, 그들이 그들 자신과 소속 커뮤니티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어떤 유형인지 분석한 Metoyer-Duran의 연구가 대표적이다(Metoyer-Duran 1993a). Agada는 미국 한 빈민가의 흑인 게이트키퍼 20명을 심층면담을 하여 그들의 정보이용환경을 조사하였는데, 그들은 지역의 일반 주민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평균 수입도 두 배 정도 높았으며 주요 정보요구는 차별과 인종 문제, 범죄문제, 가족문제 등이었음을 밝혔다(Agada 1999). Chu는 주류 사회의 언어수준이 낮은 부모보다 빠른 속도로 주류언어를 습득하는 이민가정의 어린이들이 그들의 가족을 위해 정보적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한국계와 멕시코계 이민가정 어린이들을 통해 확인하였다(Chu 1999a). Jeong은 미국 내 한인 대학원생과 그 배우자들이 한인 학생이나 한인교회 등 한인 커뮤니티에 정보를 의존하면서 게이트키퍼인 교회 성직자들이 유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사회로의 동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였다(Jeong 2004; Caidi, Allard and Quirke 2010).

관련 연구 중에는 게이트키퍼와 관련된 정보현상에 대한 문헌리뷰들도 일부 존재하였는데, Metoyer-Duran은 보건,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문헌정보학 등 여러 분야의 게이트키퍼 관련 연구들의 경향을 조사하면서 인간 게이트키퍼링 관련 개념들을 살펴보았다(Metoyer-Duran 1993b). 그리고 Caidi 등은 이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정보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주민 집단 내에서 게이트키퍼들의 정보중개와 관련된 문헌들에 대한 리뷰를 시도하였다(Caidi, Allard and Quirke 2010). 또한 Liu는 문헌 분석을 통해 다문화적 성격이 더욱 강해지는 미국사회에서 도서관과 참고사서들이 다문화 이용자들에게 대한 인식과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수인

중 집단 내 정보유통과정에서 게이트키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Liu 1995).

### 2.3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2009년 부산과 경남의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4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설문조사의 틀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였다(이용재 외 2009). 그 이유는 본 연구가 2009년에 조사된 일반 결혼 이주여성의 정보리터러시 수준과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2009년 연구의 설문은 대표적 정보리터러시 기준인 ACRL의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ANZIIL의 〈Australia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 SCONUL의 〈The Seven Pillars of Infor-

mation Literacy model〉 등에서 정보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추출한 다음, 보고서 작성과 과제수행 등을 주로 하는 대학생 위주로 개발된 이들 정보리터러시 기준의 주요 요소들을 외국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환경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는데,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나 정보서비스 등에 관련된 문헌들에서 추출된 정보리터러시 관련 요소들이 접목되었다. 정보리터러시 항목별 조사는 최저 1점(부정적)에서 최고 5점(긍정적)의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대상자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정보리터러시 측정항목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의  $\alpha$ 값은 0.949였으며, 각 세부 항목별 신뢰도 검증결과와 동일 측정항목으로 국내 일반 이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2009년 연구의 Cronbach의  $\alpha$ 값은 <표 3>과 같다.

<표 2>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의 정보리터러시 관련 설문내용

주요요소	세부 요소	문항수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령대, 출신국가, 거주지, 직업, 한국체류기간</li> <li>사용가능 언어, 학력, 같은 모국출신과 비교한 소득수준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정도 (이 부분은 2010년 연구에서 추가됨)</li> </ul>	9	
한국어 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의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 교육 이수여부, 이수기간, 이수기관</li> <li>정보활용교육 이수여부, 이수기간, 이수기관</li> </ul>	6	
정보 리터러시 관련 주요 구성요소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글을 읽고 쓰는 수준</li> <li>일상생활 수준의 의사소통 여부(물건구매, 찾아가기 등)</li> <li>고급수준의 의사소통 여부(자녀학원, 권리구제 등)</li> <li>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언어의 소통 여부</li> <li>검색시 동의어, 관련어 사용 원활성</li> </ul>	5
	정보요구 인식/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에 대한 자세와 인식(적극 추구, 자포자기 등)</li> <li>정보 필요성 인식 강도</li> <li>정보요구의 표현 정도</li> </ul>	3
	정보원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인 정보원 인식</li> <li>공공기관 정보원 인식</li> <li>대중매체 정보원 인식</li> <li>인터넷 정보원 인식</li> <li>도서관 인식</li> </ul>	9
	정보접근/정보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인 이용빈도</li> <li>공공기관 이용빈도</li> <li>대중매체 이용빈도</li> <li>도서관 이용빈도</li> <li>인터넷 정보원 이용빈도</li> <li>검색기능 이용</li> </ul>	12
	정보이용/분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췌, 메모, 정리, 스크랩 등</li> <li>북마크 관리/메일 관리/파일과 폴더 관리</li> <li>스프레드시트나 DB프로그램 이용한 정보 관리</li> </ul>	5
	정보생산/소통/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위사람(가족, 동료 등)과의 대화</li> <li>신문/잡지 등 투고</li> <li>온라인 게시판 등에 글쓰기</li> </ul>	8

주요요소		세부 요소	문항수
정보 리터러시 관련 주요 구성요소	정보생산/소통/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일/메신저 이용하기</li> <li>• 미니홈피/홈페이지/블로그 운영</li> <li>• 각종 미디어 제작</li> <li>• 문서제작/프리젠테이션 제작</li> </ul>	
	정보윤리/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li> <li>• 영상, 음원, 게시물 등의 합법적 이용</li> <li>•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인식</li> <li>• 네티켓 준수</li> <li>•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li> </ul>	5
	정보통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의 이용 - 기본/검색/메일 등</li> <li>• 컴퓨터의 이용 - 기본/워드/프리젠테이션/스프레드시트/모국어 언어팩 등</li> <li>• 정보기기의 이용 - 프린터/스캐너/디지털카메라 등</li> </ul>	10

〈표 3〉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 정보리터러시 측정항목의 신뢰도

		언어능력	정보요구 인식/표현	정보원인식	정보접근/ 정보검색	정보이용/ 분석/관리	정보생산/ 소통공유	정보윤리/ 문화	정보통신 기술
Cronbach's Alpha	게이트키퍼 (2010)	0.840	0.270	0.795	0.878	0.818	0.822	0.655	0.886
	일반이주민 (2009)	0.890	0.456	0.832	0.882	0.861	0.878	0.855	0.946
설문문항수		5	3	9	12	5	8	5	10

### 3.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의 정보리터러시 조사결과

#### 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참여 게이트키퍼들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 4〉에 잘 나타나 있다. 나이는 30대가 5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20대 미만 순이었다. 출신국가에선 베트남이 19.6%, 일본이 17.6%, 중국이 한국계 4명을 포함해 총 15.7%였고 이어 필리핀과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의 순이었다. 거주지는 부산시가 76.0%, 경남이 22.0%였고, 직업은 서비스업과 전문직이 22.5%, 전업주부가 20.0%, 기타가 35.0%이었는데, 이는 2009년 일반 결혼이주여성 조사에서 전업주부의 비율이 압도적인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게이트키퍼들이 직업을 통해 사회참여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체류기간은 전체의 67.3%가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4-5년 미만 거주자도 10.2%로 동일 지역의 일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의 연구에서 5년 이상 거주자가 32.2%, 4-5년 미만이 7.3%로 나타난 것에 비해 비교적 긴 체류기간을 보이고 있었다 (이용재 외 2009).

조사대상의 학력은 대졸(전문대졸)이 56.0%, 고졸이 38.0%, 중졸이 6.0%이었는데, 이는 2009년 약 7만명의 결혼이주여성을 조사한 연구(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에 나타난 학력수준(대학 이상 20.6%, 고등학교 42.3%, 중학교 이하 36.1%)과 비교했을 때, 게이트키퍼들의 학력수준이 상당히 높았으며, 외국의 소수인종 게이트키퍼 연구내용과도 일치하였다(Metoyer-Duran 1993a; Agada 1999). 사용가능 언어로는 모국어가 88.2%, 한국어가 92.2%, 영어가 17.6%, 기타 언어가 5.9%였으며, 사용가능한 언어의 수를 살펴본 결과, 4개 국어 가능자가 2.0%, 3개 국어가 19.6%, 2개 국어가 58.8%, 1개 국어가 19.6%였는데, 2개 이상의 언어가 가능한 사람의 비율이 80.4%로 나타나, 이중/다중언어 능력이 게이트키퍼의 인식과 지위와 관련해 큰 역할을 한다는 외국의 이주민 게이트키퍼 연구와도 일치하였다(Metoyer-Duran 1993a; Chu 1999b). 그리고 같은 모국 출신 이주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소득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대체로 비슷하거나(57.4%) 상대적으로 적다고(31.9%) 응답하였고, 지역사회 참여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하거나(51.2%) 상대적으로 많다고(16.8%) 응답하였다.

〈표 4〉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게이트키퍼와 일반 비교)

내용	구분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		일반 결혼이주여성 (2009년 조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나이	20대 미만	1	2.0	15	8.1
	20대	9	17.6	61	32.8
	30대	30	58.8	78	41.9
	40대	11	21.6	27	14.5
	50대	-	-	5	2.7
	60대 이상	-	-	-	-
	계	51	100.0	186	100
출신국가	중국	4	7.8	59	32.2
	중국(한국계)	4	7.8	50	27.3
	베트남	10	19.6	53	29.0
	필리핀	5	9.8	21	11.5
	몽골	5	9.8	-	-
	인도네시아	1	2.0	-	-
	태국	5	9.8	-	-
	우즈베키스탄	3	5.9	-	-
	일본	9	17.6	-	-
	러시아	1	2.0	-	-
	캄보디아	1	2.0	-	-
	네팔	1	2.0	-	-
	기타	2	3.9	-	-
	계	51	100.0	183	100
거주지	부산시	38	76.0	103	60.6
	경상남도	11	22.0	67	39.4
	기타	1	2.0	-	-
	계	50	100.0	170	100
직업	생산직	-	-	6	3.5
	서비스업	9	22.5	19	11.1
	자영업	-	-	10	5.9
	농업	-	-	1	0.6
	전업주부	8	20.0	111	64.9
	전문직	9	22.5	5	2.9
	기타	14	35.0	19	11.1
계	40	100.0	171	100	
한국체류 기간	1년 미만	-	-	33	18.3
	1-2년 미만	3	6.1	27	15.0
	2-3년 미만	5	10.2	31	17.2
	3-4년 미만	3	6.1	18	10.0
	4-5년 미만	5	10.2	13	7.3
	5년 이상	33	67.3	58	32.3
계	49	100.0	180	100	
학력	중학교 졸업	3	6.0	-	-
	고등학교 졸업	19	38.0	-	-
	대학교/전문대 졸업	28	56.0	-	-
	대학원 졸업	-	-	-	-
계	50	100.0	-	-	
사용가능 언어 (복수응답)	모국어	45	88.2	-	-
	한국어	47	92.2	-	-
	영어	9	17.6	-	-
	기타	3	5.9	-	-
	계	104	203.9	-	-

내용	구분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		일반 결혼이주여성 (2009년 조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득수준	다른 모국 사람보다 많음	5	10.6	-	-
	다른 모국 사람보다 적음	15	31.9	-	-
	그들과 비슷	27	57.4	-	-
	계	47		-	-
지역사회 참여	다른 모국 사람보다 많음	13	30.2	-	-
	다른 모국 사람보다 적음	8	18.6	-	-
	그들과 비슷	22	51.2	-	-
	계	43	100.0	-	-

### 3.2 한국어 교육 및 정보활용교육 이수

게이트키퍼들의 한국어 교육 및 정보활용교육 이수에 관해서는 아래의 <표 5>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 게이트키퍼들은 한국에서 이수한 경우가 76.4%, 모국에서 이수한 경우가 14.5%였으며, 모국이나 한국, 또는 양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비율이 90.9%에 이르러 일반 결혼이주여성의 80.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기간은 6개월 이상이 67.4%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3-6개월, 2-3개월, 1-2개월 등의 순이었다. 게이트키퍼들

중 3개월 이상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살펴본 결과, 84.7%로 나타나 일반 이주여성의 72.6%에 비해 더 많았는데, 이처럼 한국어 교육 이수비율과 이수기간에서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들이 일반 이주여성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도서관 교육과 컴퓨터 및 인터넷, 정보통신 기기 교육 등을 포함하는 정보활용교육 이수와 관련해 게이트키퍼들은 한국에서 이수한 경우가 54.2%, 모국에서 이수한 경우가 28.8%였으며, 모국이나 한국, 또는 양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비율은 83.1%였는데, 이는 일반 결혼이주여성의 59.7%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었다. 교육

<표 5>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의 한국어 교육 및 정보활용교육 이수현황

내용	구분	한국어교육				정보활용교육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		일반 결혼이주 여성 (2009년)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		일반 결혼이주 여성 (2009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육이수 (복수응답)	모국에서 이수	8	14.5	45	21.6	17	28.8	46	24.3
	한국에서 이수	42	76.4	125	60.1	32	54.2	67	35.4
	받은 적 없다	5	9.1	38	18.3	10	16.9	76	40.2
	계	55	100.0	308	100	59	100.0	189	100
교육이수 기관 (복수응답)	스스로 학습	8	15.1	28	15.1	7	19.1	22	17.7
	학교 등 교육기관	16	30.2	80	43.0	17	36.2	58	46.8
	NGO/중교단체	10	18.9	32	17.2	7	14.9	8	6.5
	사설 교육기관	6	11.3	9	4.8	2	4.3	11	8.9
	도서관	-	-	1	0.5	1	2.1	2	1.6
	기타	13	24.5	36	19.4	11	23.4	23	18.5
	계	53	100.0	186	100	47	100.0	124	100
교육기간	1주일 미만	-	-	7	4.9	3	7.3	12	11.8
	1주일-1개월 미만	1	2.2	6	4.2	7	17.1	21	20.6
	1개월-2개월 미만	2	4.3	16	11.3	2	4.9	10	9.8
	2개월-3개월 미만	4	8.7	10	7.0	7	17.1	15	14.7
	3개월-6개월 미만	8	17.4	19	13.4	4	9.8	12	11.7
	6개월 이상	31	67.4	84	59.2	18	43.9	32	31.4
	계	46	100.0	142	100	41	100.0	102	100

기간은 6개월 이상이 43.9%, 2-3개월과 1주-1개월이 각각 17.1%, 3-6개월이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정보활용교육을 3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게이트키퍼는 53.7%, 일반 결혼이주여성은 43.1%로 나타났는데, 교육이수 비율과 교육기간의 비교를 통해 정보활용교육에 있어서도 게이트키퍼들이 일반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3.3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의 정보리터러시 세부 항목별 수준

본 연구의 결과, 게이트키퍼의 전체적인 정보리터러시 수준은 2009년에 동일한 설문도구로 조사된 일반 결혼이주여성 집단의 정보리터러시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리터러시의 수준을 8개 세부항목별로 총 57개 문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아래의 <표 6>과 같이 평균점수에서 게이트키퍼들이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t=6063, p=0.000$ ). 그리고 이 결과에서 최근 증가하는 결혼이주여성 출신국가의 성격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9명의 일본출신 게이트키퍼를 제외하고

2009년 일반 결혼이주여성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도 두 집단간 정보리터러시 수준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t=6.634, p=.000$ ).

그리고 정보리터러시의 세부항목별 평균점수를 문항수로 나누어 세부항목을 5점척도로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 7>과 같이 게이트키퍼들은 정보요구 항목에서 3.4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언어능력, 정보통신 기술, 정보원 인식, 정보접근/정보검색, 정보윤리/문화 등의 순이었다. 정보생산/소통/공유(2.9485)와 정보이용/분석/관리(2.90196) 항목은 중간점수 이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2009년의 일반 결혼이주여성 대상 연구와 비교한 결과, 일반 이주여성 은 정보요구 항목만 중간점수를 넘겼을 뿐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중간점수 이하를 보였고, 모든 항목에서 게이트키퍼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일반 이주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3.1 언어 능력

언어(한국어) 사용능력과 관련해 게이트키퍼들은 <표 8>과 같이 전체적으로 중간점수인 3점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이 항목의 5점척도 평균점수는 3.4078로 나타났다.

<표 6> 정보리터러시 측정항목 총점 비교(게이트키퍼와 일반 결혼이주여성)

		사례수	총점평균	5점척도 평균(총점평균/문항수)	표준편차	표준오차
총점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	51	178.9608	3.1397	26.08905	3.65320
	일반 결혼이주여성	189	148.3810	2.6032	47.81239	3.47784

<표 7> 정보리터러시 세부항목 5점척도 비교(항목별 총점/문항수)

	언어능력	정보요구	정보원인식	정보접근/ 정보검색	정보이용/ 분석/관리	정보생산/ 소통/공유	정보윤리/ 문화	정보통신 기술
이주여성 게이트키퍼	3.4078	3.4379	3.1590	3.1405	2.90196	2.9485	3.1255	3.1765
일반 결혼이주여성	2.8878	3.0741	2.7460	2.5586	2.4688	2.3459	2.5471	2.5455

<표 8> 언어(한국어) 능력 항목 응답결과

언어(한국어)	이주여성 게이트키퍼			일반 결혼이주여성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한글을 읽고 쓰기가 원활	51	3.2353	0.86228	179	3.2011	1.14842
일상생활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	51	3.9412	0.67563	182	3.5879	1.10272
고급수준(자녀학원 선택/병원진료 등)의 한국어 의사소통	50	3.5200	0.83885	172	3.1047	1.32920
한국어로 된 컴퓨터 이용 가능 및 인터넷 정보의 탐독과 이해 가능	51	3.3725	0.82367	176	2.8239	1.29071
정보검색 시 한국어 키워드의 동의어나 상하위 개념어 사용 가능	49	3.1837	0.72668	175	2.6971	1.32818



“일상생활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3.9412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정보검색 시 한국어 키워드의 동의어나 상하위 개념어 사용 가능”이 3.1827로 가장 낮았다. 2009년 연구의 일반 결혼이주여성과 비교했을 때, 게이트키퍼들은 언어 항목의 모든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평균점수가 높아, 일반 이주여성에 비해 한국어의 이해와 사용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t=4.123, p=0.000$ ), 일본 출신 게이트키퍼들을 제외한 상태에서도 그러하였다( $t=4.311, p=0.000$ ). 이는 앞에서 게이트키퍼들이 한국어 교육 이수비율과 이수기간이 일반 이주여성에 비해 더욱 적극적이었던 것과도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 3.3.2 정보요구

게이트키퍼들은 정보요구 항목에서 다른 항목들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5점척도 평균점수가 3.4379로 나타났고 <표 9>와 같이 3개 질문에서 모두 중간점수 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보추구행태”가 가장 높았다. 이 항목을 일반 결혼이주여성들의 응답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게이트키퍼들이 높은 점수를 보여 게이트키퍼들이 정보요구의 인식과 표현에서 더욱 적극적이었다.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분석에서도 입증되었으며( $t=3.897, p=0.000$ ), 일본 출신 게이트키퍼

들을 제외하여도 두 집단간의 차이는 명백하였다( $t=4.282, p=0.000$ ).

### 3.3.3 정보원 인식

이 항목에서 게이트키퍼들은 <표 10>과 같이 전체적으로 중간점수인 3점을 약간 상회하는 응답을 보여주었고, 5점척도 평균점수는 3.159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포털 등 일반 홈페이지)”, “주변 한국인”, “주변 모국인”,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등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게이트키퍼들이 일반 이주여성들보다 다양한 정보원들을 중요 정보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통계적으로도 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3.994, p=0.000$ ). 일본출신 게이트키퍼를 제외하였을 때에도 그 결과는 동일하였다( $t=3.688, p=0.000$ ). 그리고 정보원 인식에 있어 세부 항목에 대한 순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주변 모국인, 주변 한국인,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등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중간 점수 이상을 부여하였으나, 게이트키퍼들은 인터넷(포털 등 일반 홈페이지), 복지관/민간단체/종교단체, 인터넷(전문 홈페이지), 책이나 신문, 잡지 등도 중요 정보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도서관과 그 홈페이지는 게이트키퍼들에게 정보원으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반 이주여성들보다 더 낮게 인식되고 있었다.

<표 9> 정보요구 항목 응답결과

정보요구	이주여성 게이트키퍼			일반 결혼이주여성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한국 생활에서 평소 정보의 필요성 인식	50	3.4000	0.85714	183	3.1148	1.12560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보추구행태	51	3.5294	0.75771	181	3.4751	0.98075
주변사람, 관공서 등에 정보요구 잘 표현함	51	3.4118	0.77914	182	2.9890	1.09741

<표 10> 정보원 인식 항목 응답결과

정보원	이주여성 게이트키퍼			일반 결혼이주여성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주변 모국인	51	3.3529	0.91266	179	3.3296	1.01548
주변 한국인	51	3.4314	0.90011	178	3.2528	1.02407
행정기관과 그 홈페이지	51	3.0392	0.93725	176	2.7784	1.16707
복지관/민간단체/종교단체	50	3.1600	1.03726	178	2.8146	1.17142
책이나 신문, 잡지	51	3.1176	0.81602	179	2.8827	1.4788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51	3.1961	0.93850	176	3.2273	1.09260
인터넷(포털 등 일반 홈페이지)	51	3.4314	0.83078	179	2.8715	1.19936
인터넷(전문 홈페이지)	51	3.1569	0.94599	177	2.6949	1.20493
도서관과 그 홈페이지	51	2.0678	0.82652	178	2.4213	1.09286

3.3.4 정보접근/정보검색

이 항목에서 게이트키퍼들은 <표 11>과 같이 대부분 중간점수인 3점을 상회하는 응답을 보여주었고, 5점척도 평균점수는 3.1405로 나타났다.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정보원을 자주 이용하는가에 대해 게이트키퍼들은 “도서관과 그 홈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중간점수 이상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주변 모국인”, “주변 한국인”,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등에만 중간점수 이상을 부여한 일반 결혼이주여성들의 응답과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게이트키퍼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포털 등 일반 홈페이지)”, “주변 한국인”, “인터넷(전문 홈페이지)”, “주변 모국인” 등의 순으로 많이 이용한 반면 일반 결혼이주여성들은 “주변 모국인”, “주변 한국인”,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인터넷(포털 등 일반 홈페이지)” 등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를 얻기 위해 게이트키퍼들이 일반 이주여성보다 더 다양한 정보원들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인터넷과 행정기관, 민간기관 등을 정보원으로 더 많이 활용하였다.

정보검색에서도 게이트키퍼들은 일반 이주여성들에 비해서 더욱 역동적이었는데, “인터넷 검색시 여러 키워

드의 동시 사용”이나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검색”에서는 중간점수 이상을 나타냈으며, 이는 일반 결혼이주여성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의 온라인 목록 검색” 역시 일반 결혼이주여성에 비해서는 약간 높으나 중간점수 이하의 응답을 보여, 앞에서 도서관을 정보원으로 낮게 인식한 것과 연결되어 도서관이 게이트키퍼들에게도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종합하면, 게이트키퍼들이 정보접근/정보검색 항목에서 일반 이주여성들에 비해 더 높은 정보리터러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t=5.306, p=0.000$ ), 일본 출신 게이트키퍼들을 제외하여도 마찬가지였다( $t=5.460, p=0.000$ ).

3.3.5 정보이용/분석/관리

이 항목에서 게이트키퍼들은 <표 12>와 같이 중간점수 이하의 응답을 많이 보였고, 이 항목의 전체 5점척도 평균은 2.90196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파일과 폴더의 체계적 관리”가 3.200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정보이용시 메모”가 3.1800으로

<표 11> 정보접근/정보검색 항목 응답결과

정보접근	이주여성 게이트키퍼			일반 결혼이주여성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주변 모국인	50	3.3800	0.96658	179	3.3575	1.10950
주변 한국인	51	3.4314	0.92206	177	3.2429	0.99016
행정기관과 그 홈페이지	51	3.2549	0.97659	167	2.7365	1.15750
복지관/민간단체/종교단체	50	3.2000	1.01015	174	2.7011	1.15918
책이나 신문, 잡지	50	3.0600	0.76692	173	2.7688	1.14311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51	3.1569	0.98737	174	3.1724	0.99950
인터넷(포털 등 일반 홈페이지)	51	3.5882	0.92036	171	2.8655	1.25066
인터넷(전문 홈페이지)	51	3.3922	0.87358	174	2.7816	1.24395
도서관과 그 홈페이지	50	2.8000	0.92582	174	2.3908	1.08437
검색 시 여러 개의 키워드를 동시 사용	48	3.2708	0.86884	170	2.5118	1.15763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검색	50	3.2400	0.84660	174	2.8103	1.28293
도서관 온라인 목록을 자주 검색	50	2.4800	0.81416	172	2.1163	0.97835

<표 12> 정보이용/분석/관리 항목 응답결과

정보이용	이주여성 게이트키퍼			일반 결혼이주여성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도서/신문기사 등의 체계적 정리와 보관	51	2.8824	0.86364	178	2.9157	1.15894
정보 이용시 메모	50	3.1800	0.69076	178	2.9607	1.06491
컴퓨터 속 파일과 폴더의 체계적 관리	50	3.2000	0.92582	177	2.6835	1.18293
인터넷 브라우저 북마크의 체계적 관리	50	2.7400	0.89921	173	2.3815	1.10711
스프레드시트/DB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정보 관리	48	2.8333	0.97486	177	2.2599	1.02814

나타났다. 나머지는 모두 중간점수인 3점 이하였다. 이 항목에서도 게이트키퍼들은 일반 결혼이주여성들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t=3.368, p=0.001$ ). 일본 출신 게이트키퍼들을 제외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t=3.568, p=0.001$ ). 구체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이용/분석/관리 질문들에서는 게이트키퍼들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도서/신문기사의 체계적 정리와 보관”에서는 일반 결혼이주여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 3.3.6 정보생산/소통/공유

이 항목에서는 <표 13>과 같이 중간점수 이하의 응답이 더 많았으며, 이 항목의 5점척도 평균에서 중간점수 이하인 2.9485를 보였는데, “새로운 소식/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자주 대화”가 3.8039로 다른 문항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게이트키퍼들은 이 항목 전체와 모든 세부 질문에서도 일반 결혼이주여성들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 정보생산/소통/공유 활동이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t=5.435, p=0.000$ ). 일본출신 게이트키퍼들을 제외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t=5.779, p=0.000$ ).

### 3.3.7 정보윤리/문화

이 항목의 5점척도 평균점수는 3.1255로 나타났으며, <표 14>와 같이 “인터넷중독/게임중독의 위험성 인식”에서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다. “수시로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검사를 실시”와 “인터넷으로 영화/음악 이용시, 합법적 이용”은 중간점수 이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이 항목에서도 게이트키퍼들은 모두 일반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고( $t=4.682, p=0.000$ ), 일본출신 게이트키퍼들을 제외했을 경우에도 그러하였다( $t=4.902, p=0.000$ ).

### 3.3.8 정보통신기술

이 항목에서 <표 15>와 같이 게이트키퍼들은 5점척도 평균에서 3.1765를 보여주었는데, “인터넷 검색 사용”과 “이메일 사용”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스캐너 사용”, “스프레드시트 사용”,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사용”에는 중간점수 이하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전체적으로 게이트키퍼들은 일반 결혼이주여성들보다 정보통신기술의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수준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t=140.624, p=0.000$ ). 일본출신 게이트키퍼들을 제외하여도 그 차이에는 변화가 없었다( $t=5.738, p=0.000$ ).

<표 13> 정보생산/소통/공유 항목 응답결과

정보생산/소통/공유	이주여성 게이트키퍼			일반 결혼이주여성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새로운 소식/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자주 대화	51	3.8039	0.77510	179	3.3128	0.97289
각종 소식지, 신문, 잡지 등에 투고	50	2.8600	0.90373	175	2.1086	0.90635
사람들과 소통위해 인터넷 게시물/댓글 작성	51	2.7255	0.89618	173	2.2601	1.06010
사람들과 소통위해 메일을 이용	51	3.1765	0.93179	177	2.6215	1.22391
사람들과 소통위해 메시지를 이용	51	3.1373	1.02019	175	2.8629	1.31024
사람들과 소통위해 미니홈피/블로그 운영	51	2.6667	0.88694	176	2.4148	1.16796
사진/음악/영상 등을 이용한 UCC 제작	50	2.7200	0.99057	179	2.3408	1.10212
프리젠테이션/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발표나 문서작성	50	2.6800	0.99877	177	2.1751	1.09641

<표 14> 정보윤리/문화 항목 응답결과

정보윤리/문화	이주여성 게이트키퍼			일반 결혼이주여성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인터넷 이용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대비 철저	51	3.0588	0.83455	177	2.6893	1.27009
인터넷으로 영화/음악 이용시, 합법적 이용	51	2.6667	1.05198	179	2.2849	1.14771
수시로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검사를 실시	51	2.9804	1.06752	180	2.5111	1.23492
인터넷 게시물/댓글 작성시, 인터넷 예절 준수	51	3.2157	1.00625	179	2.8939	1.37592
인터넷중독/게임중독의 위험성 인식	50	3.7600	0.95959	180	3.0667	1.41658

〈표 15〉 정보통신기술 항목 응답결과

정보통신기술	이주여성 게이트키퍼			일반 결혼이주여성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인터넷 검색을 잘 사용	51	3.7059	0.85543	179	2.9050	1.26621
이메일을 잘 사용	51	3.7059	0.85543	178	2.8764	1.31330
메신저를 잘 사용	51	3.1961	1.07740	179	3.0000	1.35746
워드프로세서를 잘 사용	51	3.2745	0.98140	179	2.6257	1.21766
스프레드시트를 잘 사용	51	2.6078	0.80196	179	2.3240	1.13970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잘 사용	50	2.6000	0.80812	178	2.1124	1.05700
모국어 언어팩 설치를 잘함	50	3.2800	0.99057	179	2.7374	1.24670
프린터를 잘 사용	51	3.3725	1.01903	179	2.7095	1.27397
스캐너를 잘 사용	50	2.8000	1.06904	179	2.3855	1.19079
디지털카메라를 잘 사용	51	3.4706	0.96650	179	3.2291	1.26226

#### 4.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의 정보리터러시 구축 배경

설문조사 결과에서 게이트키퍼들은 일반 이주여성들에 비해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높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보리터러시를 보유하고 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게이트키퍼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정보사회인 한국사회

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이주여성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여러 시사점들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과 경남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주민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상담이나 통번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4명의 이주여성 게이트키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게이트키퍼들의 기본적 정보는 아래의 〈표 16〉과 같다.

〈표 16〉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와의 면담 관련 기본 정보

이름	출신국/현재국적	연령	학력	직업	지역	한국체류기간	사용가능언어	모국에서의 직업	면담일시(2010년)/장소
A	한국계중국인/한국	30대	고졸	상담/통역	부산	5년3개월	중국어/한국어	웨딩샷 직원/관광안내	4.20 10:30-11:30/ 피면담자 근무지
B	베트남/한국	30대	고졸	상담/통역	부산	10년 이상	베트남어/한국어	졸업 직후 한국 산업연수생	4.20 11:30-12:00/ 피면담자 근무지
C	한국계중국인/한국	40대	대졸	상담/통역	부산	10년	중국어/한국어	관광업	4.23 14:30-15:30/ 피면담자 근무지
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30대	전문대졸	상담/통역	경남	3-4년	인도네시아어/영어/한국어	모국 내 한국계 기업	4.24 11:30-12:00/ 피면담자 근무지
E	베트남/한국	30대	고졸	상담/통역/은행 송금업무/복지관 지원	경남	5년 이상	베트남어/한국어	옷 제작 판매	4.24 12:00-12:30/ 피면담자 근무지
F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	30대	대졸	상담/통역	경남	3년	우즈베크어/러시아어/터키어/한국어	보험설계 업무	4.24 13:00-13:30/ 피면담자 근무지
G	베트남/한국	30대	대졸	상담/통역/다문화강사/기업연수	경남	7년	베트남어/프랑스어/한국어	간호사	5.3 11:00-12:00/ 피면담자 근무지
H	중국/한국	30대	대졸	상담/통역	경남	10년	중국어/영어(초급)/한국어	초등교사/한국계 무역회사	5.4 11:30-12:00/ 피면담자 근무지
I	태국/한국	30대	대졸	상담/통역	경남	8년	태국어/한국어	유치원 교사	5.4 12:30-13:30/ 피면담자 근무지
J	필리핀/한국	30대	대졸	상담/통역/영어강사	경남	4년 반	타갈로그어/영어/한국어	싱가폴에서 베이비시터	5.4 12:30-13:30/ 피면담자 근무지
K	베트남/한국	40대	대학중퇴	상담/통역/법원 서류번역	경남	10년	베트남어/한국어	중등교사, 국제결혼 알선회사, 한국 산업연수생	6.16 10:00-11:00/ 피면담자 근무지
L	베트남/한국	20대	전문대졸	상담/통역	경남	2년	베트남어/한국어	졸업 직후 한국인과 결혼	6.16 10:00-11:00/ 피면담자 근무지
M	몽골/몽골	20대	대졸	상담/통역	경남	2년 반	몽골어/한국어	국제결혼 알선회사	6.16 11:00-12:00/ 피면담자 근무지
N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	40대	대졸	상담/통역/피아노교습	경남	10년 이상	우즈베크어/한국어	피아노 교습	6.16 11:00-12:00/ 피면담자 근무지

#### 4.1 모국의 정보이용 환경

이주여성 게이트키퍼들이 모국에서 경험한 도서관 환경,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 등 정보이용환경은 그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대체적으로 모국의 정보이용환경은 그다지 좋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모국의 정보이용환경이 게이트키퍼들의 정보리터러시를 구축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당시에 도서관환경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카드목록을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도서관 검색시스템을 사용한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었다. 한국에서 도서관 검색을 하려고 하니 힘들었다(중국출신 A씨와의 면담).

내가 한국 오기 전의 베트남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다. 도시지역만 일부 가능할 뿐 농촌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다.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다. 도서관도 거의 없었다(베트남출신 B씨, E씨, G씨와의 면담내용 종합<sup>2)</sup>).

#### 4.2 높은 교육 수준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게이트키퍼들의 학력은 중졸 6%, 고졸 38%, 대졸(전문대졸) 56%였고, 면담에 참여한 게이트키퍼들도 14명 중 11명이 대졸(중퇴포함)이었고 고졸은 3명 뿐이었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조사에서 대학 이상 20.6%, 고등학교 42.3%, 중학교 이하 36.1%와 비교했을 때, 게이트키퍼들의 학력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이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은 일반 결혼이주여성들에 비해 정보리터러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대학교 때 컴퓨터 기초교육은 이수하였다(중국출신 C씨와의 면담).

대학에서 전공이 컴퓨터분야여서 IT와 관련된 것은 수업을 통해 배웠고 별도로 학원도 다녔다(태국출신 I씨와의 면담).

대학다니면서 학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다(우즈베크출신 N씨와의 면담).

이상과 같이 그들이 모국에서 받은 고등교육은 컴퓨터 기초교육, 도서관 이용 등 정보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4.3 한국어 능력과 이중/다중 언어 능력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소수자 집단이 주류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류사회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류 언어에 능통해야 한다. 또한 이런 소수자들은 모국사회에 대한 왕성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 소수자집단과의 지속적 정보교환을 지속하기 있기 때문에 모국어도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면담과정에서 게이트키퍼들은 모두 모국어와 한국어 등 기본적으로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했고 5명은 3개국어 이상의 다중언어 구사가 가능하였다.

한국어는 한국에 와서 배웠는데, 인제대 교육센터에서 배웠고, 개인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때문에 과외를 받기도 했다(태국출신 I씨와의 면담).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원을 6개월에서 1년정도 다녔고, 한국에 와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이주민 단체에서 1년정도 공부했다(베트남출신 L씨와의 면담).

면담에 참여한 일부 게이트키퍼들은 모국에서도 이미 한국말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어릴 때부터 한국말을 써왔고, 한국인 대상 백두산관광 일을 해서 한국어는 거의 완벽했다. 한국 표준말을 배우고 싶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중국에 유학온 학생들에게 중국어 과외를 시키면서 나도 표준말을 많이 배웠다(중국출신 C씨와의 면담).

이와 같이 게이트키퍼들은 주류사회 언어 등 이중/다중언어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고, 그

2) 여러 게이트키퍼들의 면담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논문의 분량을 고려하여 각 면담내용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면담내용을 종합하였다.

러한 언어능력으로 그들은 활발하게 정보를 이용하고 있었다. 일반 이주여성들이 높은 정보리터러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도 언어역량 구축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는 문맹인 한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이주민을 같이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한국인 강사의 수업으로 진행되는 한계도 있었다.

가톨릭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는데, 노인 한글교실에 섞여서 한글을 배웠다. 그러다보니, 잘 배우지도 못한 것 같아서 불만스러웠다(베트남출신 G씨와의 면담).

한국어 공부는 같은 나라출신이 해줬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에게 한글을 배우니까 알아듣기 힘들다. 베트남 사람 중에서 한국말 잘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가르친다면 한국말을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베트남출신 L씨와의 면담).

이처럼 수요자의 불만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의 한국어 프로그램이 보이는 한계를 극복하여 더욱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정착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4.4 정보활용 교육의 경험

이주여성들이 높은 수준의 정보리터러시를 보유하게 되면, 그들은 주류사회와 모국사회의 정보입수와 이용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어 새로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모국이나 새로운 사회에서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관련 교육의 이수와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면담대상 게이트키퍼들 중 일부는 모국에서 학교교육의 일부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앞에서 언급한 열악한 모국의 정보이용환경(도서관 환경과 정보통신기술 환경, 교육환경 등)으로 인해 모국에서 정보활용교육 이수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전공이지만 필리핀에서는 컴퓨터 실습환경이 좋지 않아 많이 배우지 못했다(필리핀출신 J씨와의 면담).

고향에서 도서관 이용교육이나 컴퓨터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우즈베크출신 N씨, F씨, 베트남출신 B씨, K씨와

의 면담내용 종합).

이들 게이트키퍼들 대부분은 한국에 들어온 후 한국 사회가 정보사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 형태로 정보 활용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주최한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에 많이 참여하였고, 일부는 스스로 학습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 사용을 익히기도 하였다.

한국에 와서 학원에서 3개월정도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을 배웠다(태국출신 I씨와의 면담).

통장 이주머니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 수업이 있다고 해서 여성회관과 복지관에서 하는 컴퓨터와 인터넷 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베트남출신 E씨와의 면담).

집에서 혼자 틈틈이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을 익혔다. 간혹 남편 회사사람이나 방문선생님이 오면 물어보고 도움을 받았다(베트남출신 K씨와의 면담).

한편, 모국에서도 도서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별로 없는 게이트키퍼들은 국내에서도 대부분이 도서관 이용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와 관련해 향후 도서관이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도서관계의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4.5 정보이용 관련 한국 가정의 우호적 환경

다른 전통과 배경, 종교 등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이 비교적 보수적인 한국인 가정에 시집을 오면서 많은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시부모 등 가족구성원들은 이주여성들의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구매와 이용, 다양한 매체에 대한 접근, 도서관이나 민간단체 등 정보제공기관의 이용, 각종 언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의 이수, 모국출신자나 기존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직결된다. 면담에 참여한 게이트키퍼들의 경우, 대체로 남편 등 가족구성원들이 자신의 정보이용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적어도 장애가 되지 않는 비교적 우호적 가정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이런 영향으로 면담대상 게이트키퍼들이 모두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컴퓨터를 보유하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였다.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이 크다. 남편이 인터넷, 워드 등을 잘 가르쳐 준다. 집에서 메신저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며, 화상카메라를 설치해 베트남의 가족들과도 직접 연락하고 있다(베트남출신 B씨와의 면담).

집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다. 남편은 잘 쓰지 않는다. 나는 내가 알아서 쓰면 된다(몽골출신 M씨, 중국출신 H씨, C씨, 베트남출신 G씨, K씨와의 면담내용 종합).

위와 같이 정보이용과 관련된 우호적인 가정환경으로 인해 이주여성들은 다양한 매체와 기술, 관련 단체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고 있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은 향상될 수 있다.

#### 4.6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활발한 사회 참여

면담에 참여한 게이트키퍼들은 매우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활발한 사회참여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자세는 새로운 사회에 소수자로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에 위축되지 않고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입수와 이용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이어져 그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또한 정보사회에 주눅들지 않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통신 기술을 습득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도 느껴졌다.

나는 어려움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다른 베트남 사람에 비해 더 노력한 것 같다. 처음에 차별을 많이 느꼈고 한국에 살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주변사람들도 반기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살 것이다. 적응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많이 노력했다. 노력하다보니, 남편과 가족, 다른(이주민)단체에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많이 도와줬다(베트남출신 G씨와의 면담).

인터넷을 통해 같은 이주민들의 일자리를 자주 찾아본다. 사람들이 능력은 있는데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몰라 힘든 것이다. 일자리는 정보를 찾는 능력하고 적극성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중국사람이나 한국사람에게 뭘 잘 안 물어본다. 내 스스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법무부도 검색하고 다른 사이트도 이용한다(중국출신 C씨와의 면담).

게이트키퍼들은 일반 이주여성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직업활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모국에서 교사나 간호사, 한국계 회사, 관광안내 등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온 후에도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상담과 통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초등학교 영어강사, 다문화강사, 피아노 교습, 은행의 현지송금 업무, 법원이나 기업체에서의 문서 번역 등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직업활동은 일반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더 많은 정보의 입수와 배포, 그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기관의 이용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필요로 하므로, 그들의 정보리터러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담소 전화나 핸드폰으로 자주 연락한다. 그러면 내가 인터넷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서 베트남 이주여성에게 전화해서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베트남출신 B씨와의 면담).

법원의 공소장 번역이나 기업체 소개서나 계약서 번역같은 일을 할 때 주로 메일을 사용한다. 상담일 하는 다른 나라 동료들과도 메일을 자주 쓴다(베트남출신 G씨와의 면담).

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는 직업활동 외에 결혼이주여성 등 자국동포 관련 사안과 한국 내 공공기관과 민간영역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에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었다.

게이트키퍼들은 한국사회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주위의 자국 이주여성 등에게 공식 상담자를 넘어 '언니'로서 한국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주변의 모국 사람들한테 많이 연락이 온다. 밤에도 많이 온다. 임금체불, 재판, 이혼, 근로조건, 비자문제, 가정 폭력, 공공요금, 은행이용, 물건 사기, 병원, 동사무소, 남편과의 대화 통역, 화상채팅 사용법 등등 다양하다(태국출신 I씨, 몽골출신 M씨, 필리핀출신 J씨, 중국출신 A씨, 베트남출신 G씨, K씨, E씨와의 면담내용 종합).

게이트키퍼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는 한국의 관공서나 민간단체 등과 대등한 파트너로 활동하는 형태로도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왕성한 정보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청, 노동부, 인권위, 청소년회관 직원, 경성대 직원들과도 친한 편이다. 관공서에서 상담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나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해결한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중국어 강사도 했고, 학교에서 다문화 강사도 했다. 중국사람보다 한국사람 친구가 더 많고 한국사람과 더 만나는 편이다. ... 중략 ... 초등학교 다문화강사를 작년에 하면서 중국을 소개하는 PPT파일을 처음 만들어봤다. 하다보니,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도 넣고 동영상도 넣고 해서 더 잘 만들고 싶다. 다음에 파워포인트 교육을 정말 꼭 교육 받고 싶다(중국출신 C씨와의 면담).

이처럼 게이트키퍼들은 더욱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활발하게 자국 출신자 커뮤니티와 한국사회의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을 오가며 왕성한 사회참여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삶의 태도,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 활발한 사회참여는 자연스럽게 정보접근과 이용, 배포 관련 활동과 그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습득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 4.7 다양한 매체와 정보제공 기관의 이용

면담에 참여한 게이트키퍼들은 한국에 비해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인 중국과 동남아, 몽골, 러시아연방 등에서 나고 자랐다. 그들은 모국을 떠나 상당한 수준의 정보사회인 한국사회에 정착해 나가면서 상당한 문화적 충격과 혼란을 경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정보사회와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사회의 일원이 되기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처음에 컴퓨터 전원을 켜는 것도 몰랐다. 처음에 고향의 가족들과 채팅이라도 하고 싶어 중고 컴퓨터를 구입했다. 남편도 컴퓨터를 안 써서 A/S기사에게 물어서 바탕화면 설정도 하고 바이러스 치료법도 배웠다. 그 후 가톨릭여성회관 수녀님이 컴퓨터교육을 배우신다고 하기에 따라가서 조금 배웠는데, 이제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하는 1개월짜리 컴퓨터 교육을 받았다.

다른 베트남 출신에 비하면 잘하겠지만, 아직 한국사람에 비하면 부족하다. 이제 블로그를 만드는 법도 배워보고 싶다(베트남출신 G씨와의 면담).

정보사회와 정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게이트키퍼들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의 입수와 이용을 위해, 모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락을 위해, 그리고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고 매체 이용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도 활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야후 메신저나 네이트 같은 것을 통해 고향의 가족, 친구들과 화상채팅을 한다. 요새 인도네시아에도 PC방이 많이 생겼다. 메일은 가족들과도 하고 직장 동료들과도 한다. 미니 홈페이지인 Facebook도 이용하는데 글도 쓰고 사진도 올리면서 친구들과 대화한다.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 사람들과도 게시물, 댓글로 대화한다. 신문은 인터넷으로 인도네시아 야후를 통해 자주 보는 편이다(인도네시아출신 D씨와의 면담).

직장에서 부산일보를 보고 집에서는 국제신문을 받아 본다. 인터넷으로도 한국신문을 가끔씩 본다. 주로 경제와 증시 관련 정보는 수시로 확인한다. TV도 보지만 드라마는 같은 내용으로 시간도 아깝고, 역사스페셜이나 일요스페셜같은 정보나 교양위주의 내용을 자주 본다. ... 중략 ... 중국에 있는 친척들과 연락은 hot메일을 사용하고 채팅도 하고 화상채팅도 한다(중국출신 C씨와의 면담).

위에 언급된 사람들 외에 나머지 게이트키퍼들도 인터넷으로 모국 뉴스와 한국 뉴스를 보며, 가족들과 연락하기 위해 메신저와 메일, 화상채팅을 하며, 일부는 미니홈피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게이트키퍼들은 다양한 매체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다문화 관련 기관, 민간단체, 도서관 등 다양한 정보제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한국책도 이용하고 베트남 책도 이용하고 있다. ... 중략 ... 동사무소 같은 곳에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이용할 수 있는



무료교육은 뭐가 있는지 물어보기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같은 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 편이다(베트남 출신 B씨와의 면담).

아이들 때문에 한국에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 동네 도서관에 애들하고 와서 한국어 동화책을 자주 본다. 모국어 책은 다문화도서관에서 빌려 본다(태국출신 I씨, 필리핀 출신 J씨, 중국출신 C씨, H씨, 베트남출신 L씨, E씨, K씨, G씨와의 면담내용 종합).

면담내용 중 다양한 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행정기관 등 정보제공기관의 이용은 앞의 설문조사 내용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게이트키퍼들이 도서관을 어느 정도 이용한다는 면담내용은 설문조사에서 도서관과 그 홈페이지를 정보원으로 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과 정보를 얻기 위해 도서관과 그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 그다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과도 차이가 보였다. 이는 그들이 공공도서관은 자녀들의 한국말 교육을 위해 한국어 동화책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다문화도서관은 모국어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모국책을 이용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도서관은 그들의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부산과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들 51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2009년 같은 설문조사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지역의 일반 결혼이주여성 189명을 포함한 이주민 정보리터러시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게이트키퍼들은 자신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대해 중간점수인 3점을 상회하는 3.1397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에서는 정보요구 항목이 3.4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능력, 정보통신기술, 정보원 인식, 정보접근/정보검색, 정보유리/문화, 정보생산/소통/공유, 정보이용/분석/관리 등의 순이었으나, 끝의 두 항목들은 중간점수 이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이었다. 2009년 연구와 비교한 결과, 일반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게이트키퍼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았으며, 개별적인 세부항목에서도 모두 상대적으로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이트키퍼들이 일반 이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가지게 된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게이트키퍼 14명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국의 정보이용환경”은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들의 “높은 교육 수준”, “한국어 능력과 이중/다중 언어능력”, “정보활용교육의 경험”, “정보이용 관련 한국 가정의 우호적 환경”,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활발한 사회참여”, “다양한 정보제공기관과 매체의 적극적 이용” 등은 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가지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이주여성의 정보리터러시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관련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프로그램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언어능력은 이주여성의 정보리터러시 수준 향상을 위해 중차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기존 한국인 문맹자를 위한 한글교실 등에 이주여성들을 포함시키는 방법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출신국가들을 모아서 교육하거나 한국인 강사 중심의 프로그램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주여성 게이트키퍼들 중에서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일정한 교육을 시킨 다음, 모국 출신 일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주여성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정보활용교육 경험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중고 PC보급이나 인터넷 비용 감면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배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주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을 위한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의 증대와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계획되어야 하며, 이들과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강사인력 발굴 노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주여성들에게 더욱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도서관이 이주여성들에게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기관이라는 인식을 제공하는 이주여성 대상 도서관 체험과 도서관 이용 교육 등이 필요하며 더불어 도서관 이용교육에 대한 다국어 기반의 홍보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이주여성 가정을 더욱 정보이용에 있어 우호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여성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남편과 시부모 등 한국인 가족구성원들의 협조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한국인 남편과 이주여성이 함께 참여하여 상호이해와 배려를 증진하는 프로그램과 정보통신 기술 등을 함께 배우며 관련기술 습득과 정보에 대한 인식전환을 꾀하는 프로그램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교통 등이 불편한 농어촌지역이나 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의 행정기관, 다문화 관련 기관, 도서관 등 정보제공기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이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이동출입국사무소와 같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 현재 기존 한국주민을 위해 제공되는 이동도서관 봉사에 이주여성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자료와 시설, 서비스를 강화하고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공공도서관이 아직 이주여성 게이트키퍼들에게 이주여성의 다양한 문제에 도움을 주는 정보원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자녀를 위한 한국어 동화책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하고 있다. 이는 국내 공공도서관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늦어 그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다문화 중요 기관으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이주여성 사회에 영향력과 동원력을 가진 게이트키퍼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일부 민간도서관과 같이 다문화자료의 선정과 입수, 목록, 참고봉사, 프로그램, 이벤트 등 도서관의 다문화 업무 전반에서 이주여성 게이트키퍼들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이 이주여성 등 이주민 이용자들에게 파고들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매개체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의 Chu(1999a)의 연구처럼,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들은 부모보다 빠른 언어적응과 사회적응으로 인해 부모들을 대신해 언어적, 문화적, 정보적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더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 이벤트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a. 2010년 6월 통계월보. [online]. [cited 2010.8.02].  
 <<http://www.immigration.go.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b. 국민의 배우자 지역별 현황(2010년 6월말 기준). [online]. [cited 2010.8.02]. <<http://www.immigration.go.kr>>.
-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이수상, 장임숙. 2008.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연결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243-268.
- 이용재, 이수상, 조용완, 장임숙. 2009.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113-137.
- 이용재, 배화숙. 2009.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479-504.
- ACRL. 2000.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online]. [cited 2010.4.11]. <<http://www.ala.org/ala/mgrps/divs/acrl/standards/standards.pdf>>.
- Agada, J. 1999. Inner-City Gatekeeper: An Exploratory Survey of Their Information Use Environmen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0(1): 74-85.
- ALA. 1989.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 Final Report[online]. [cited 2010.4.13]. <<http://www.ala.org/ala/mgrps/divs/acrl/publications/whitepapers/presidential.cfm>>.
- ANZIIL. 2004. Australian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principles, standards and practice. [online]. [cited 2010.4.15]. <<http://www.anziil.org/resources/Info%20lit%202nd%20edition.pdf>>.
- Caidi, N., D. Allard, and L. Quirke. 2010. Information Practices of Immigrant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4: 493-531.
- Chatman, E. 1987. Opinion Leadership, Poverty, and Information Sharing. *RQ*, 26(3): 341-353.
- Chu, C. M. 1999a. Immigrant Children Mediators(ICM): Bridging the literacy gap in immigrant communities. *The New Review of Children's Literature and Librarianship*, 5: 85-94.
- Chu, C. M. 1999b. Literacy Practices of Linguistic Minorities: Sociolinguistic Issues and Implications for Literacy Services. *Library Quarterly*, 69(3): 339-359.

- Gilton, D. L. 1994. A World of Difference: Preparing for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for Diverse Groups. *Multicultural Review*, 3(3): 54-62.
- Jeong, D. 2004. Unbreakable ethnic bonds: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Korean graduat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6: 384-400.
- Liu, M. 1995. Ethnicity and Information Seeking. *The Reference Librarian*, 49/50: 123-134.
- Metoyer-Duran, C. 1993a. Gatekeepers in ethnolinguistic communities. Norwood,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Metoyer-Duran, C. 1993b. Information Gatekeeper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8: 111-150.
- SCONUL. 1999. Information skills in higher education: a SCONUL position paper [online]. [cited 2010. 5.02].  
<[http://www.sconul.ac.uk/groups/information\\_literacy/](http://www.sconul.ac.uk/groups/information_literacy/)>.